



## 이공계 출신 氣 살려주기



광운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준웅  
02)940-5114 joonung@daisy.kw.ac.kr

미국은 지금 미 항공우주국 NASA에서 쏘아올린 화성 탐사선“ 오퍼 튜니티 로부터 화성표면에 바닷물이 있었던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화성에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등, 화성탐사에 신바람이 나 있다.

중국도 지난해 10월 15일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5호를 쏘아 올려 미국과 우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 우주 산업이 강한 일본, 프랑스 및 러시아 등에서도 과학기술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개발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자들을 특별우대를 하고 있다. 나날이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 선진 각국의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연구 개발 분야뿐만이 아니라 재계, 정계 및 금융계 등에서도 논리적이고 합리

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출신들을 영입하여 기업의 경영관리를 이들에게 맡겨 크게 성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금 세계는 이공계 출신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기업체의 CEO(Chief Executive Officer)45%가 이공계 출신이며, 또 100년 전에 창업한 유럽의 일류기업들의 대부분의 창업자가 이공계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한 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회사인 BMW의 헬무트 판케 회장도 물리학과 교수 출신이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로레알도 과학기술을 최우선시 하는 R&D경영으로 성장한 세계 제일의 화장품 회사인데, 이 회사는 프랑스 화학자였던 유젠 슈엘레르가 1907년 염색약을 개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회사설립의 도체가 되었다.

일본 젊은 층의 직업서열 1위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덕분으로 2000년부터 3년 연속 기초 과학 분야에서 일본은 노벨상을 수상하였고, 2002년에는 노벨 화학상과 노벨 물리학상도 수상한바 있다.

중국에서도 국가 지도자급 인사 중에는 문과 출신은 찾아볼 수 없으며 대부분 이공계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즉 1세대인 모택동, 2세대인 덩소평은 물론, 3세대 지도자 장쩌민(江澤民)도 상하이 교통대학 기계과 출신이며, 주룽지(朱鎔基) 전 국무원 총리도 명문 칭화대 전기과 출신이다.

러시아에서도 이공계 대학을 나와야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선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국가 시책으로 삼고 있는데, 따라서 이공계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은 물론,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특별우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수능지원 비율이 1997년학년도에는 47.8% 대 43.2%였으나, 2004학년도에는 더욱 심화되어 53.5% 대 31.5%로 인문계열 쪽으로 더욱 편중되었다. 그 이유는 수능에서 인문계열이 자연계열보다 쉽기 때문 이란다. 그래서 수능에서 자연계열을 선택하면 점수 따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학생들은 인문계열로 수능을 치르고, 자연계열로 교차지

원 해 왔다. 따라서 올해부터 계열 선택의 의미가 없어지고, 인문계열을 택한 학생들도 자연계열로 입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 수학 등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자연계열에 입학하였으니, 당연히 실력이 저조하고 교육의 질도 저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공계 기피 현상은 정말로 심각하다. 대학입학 준비 수험생은 물론이고 명문 공과대학에 이미 입학한 학생들마저도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으로 편입학하여 수입이 좋은 의사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권력지향의 법관으로 사회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몇 년 이내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우수 과학자나 기술자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함은 물론, 현재 각국에서 우수 기업을 사냥하고 있고, 또 200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국에게 기술 경쟁력은 뒤 처져, 우리나라는 2류 과학기술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 및 캐나다 등 선진 G7 국가에서는 우수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대학진학은 인문계가 아닌 자연계열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장래는 심히 암담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공계를 전공한 과학자나 기술자들의 기를 살려주어야 결국 국가 미래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

불이라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이공계열에 입학한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이들로 하여금 국가 장래를 이끌어 갈 초석이 되게 한다.

둘째, 이공계열에 진학한 대학생 전원에게 병역혜택을 주어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

셋째, 이공계열 분야에 근무하는 과학자나 기술자의 급여 수준을 인문계열 근무자의 그것보다 2배 이상으로 처우 개선하여 특별 우

대토록 한다면 이공계열 기피현상은 사라질 것이다. 미국의 마이크로 소프트사 창업자 빌 게이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사람의 우수한 과학자나 기술자가 한 나라 인구 전체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넷째, 정부 관서에 근무하는 기술계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늘려주고, 기술계 공무원도 정부기관 최고위 자리에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면 우수한 과학자나 기술자도 공무원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과학기술분야에 크게 기여한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위한 과학기술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오로지 과학기술발전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